



성경과 세계관(4) **종교개혁**

앞에서 다루었듯이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등장한 종교개혁(Reformation, 1517)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 일어난 계몽주의(Enlightenment)이다.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등장한 종교개혁에 대하여 다루어 본다. 종교개혁에 대한 고찰은 중세 교회의 분위기와 진화론적 사고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 교회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다섯 가지 구호인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 (Sola Christus)”, “오직 은혜 (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있는 “오직 성경”이다. 왜냐하면 나머지 네 가지 모두는 성경을 신뢰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성직자와 달리 전통보다는 성경을 강조하였고, 성경을 기준

으로 카톨릭의 전통을 비판했다. 여기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볼 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경 중심이었다.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30-1384, 영국)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실제로는 '면죄부들의 효력의 포기'에 대한 토론'이 원래 제목임)을 걸기 훨씬 이전부터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의해 변화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위클리프이다. 그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함으로써 성경을 일반인들에게 읽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를 그의 가장 큰 공로로 인정한다. 그는 성경을 기초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참 교회를 구분하였고, 카톨릭 교회의 모든 전통과 교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교황이 사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도들의 계승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권좌라고 하며 비판했다. 위클리프와 같은 성경적 사고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인 "롤라드(Lollardy)"에 의해 퍼져 나갔다.

특히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 영국)은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번역(1611년 완성)의 70%는 그의 번역에 근거했다. 틴데일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추앙을 받던 토머스 모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화형 당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 이전에도 성경을 바르게 접했던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전에도 진리와 멀어진 카톨릭 교회와 용기 있게 맞섰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독일)

루터는 만 18세에 수도사가 되기 이전까지 성경을 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당시 대중들은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도사가 된 후 매년 2회 정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했다. 그는 중세 신학자들이 고대 철학에 오염되었음을 발견하고 이에 구분된 신학을 폈던 어거스틴을 가장 성서적이라고 여겼

다. 1512년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대학에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연이어 가르치면서 칭의(justification)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후 1521년에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되었을 때 보름스(Worms) 국회에서 남긴 말을 보면 루터는 '성경'에 최종적 권위를 두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저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자주 오류를 범했고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저에게 성경의 증거나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통하여 반박하지 않는다면, 저를 지배하고 제가 증거로 제시한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증거가 성경적으로 확실하다고 믿고 쓴 저의 책 중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의 용기는 바로 성경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의 행동이 성경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로만 향하는 값진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율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 스위스)

츠빙글리는 루터에 가려져서 잊힌 종교개혁자라고도 불리는 사람이다. 그는 당대 스위스의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으로써 누구보다 성경을 강조한 사람이다. 그가 한 말이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 위에 있다. 성만찬은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신부와 수녀도 결혼할 수 있다.” 그는 루터보다 훨씬 적극적이었는데 루터는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은 것을 교회가 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듯이 기존 전통에 대하여 느슨했던 반면에, 츠빙글리는 “성경이 정확하게 하라고 명하지 않은 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훨씬 적극적으로 카톨릭의 전통적 상징들을 제거했다. 심지어 오르간을 제거하고 찬양대만 부르던 찬송을 모든 성도가 부르도록 하는 변화도 추구했다.





존 칼빈(장 칼뱅, John Calvin, 1509–1564, 프랑스)

칼빈은 종교개혁의 위대한 성경 교사로서 당대 유일한 국제적인 종교개혁자로 평가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게 표현하며 지성인들과 소통하였다. 복음을 통해 회심한 후에 카톨릭 성상과 성인 숭배를 거절했으며 성경을 통해 종교개혁적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 <기독교 강요> 등 그의 수많은 신학 서적은 모두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는 “교황주의자들은 의가 믿음과 행위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 말이 옳다면 바울의 수많은 증거들은 거짓이어야 한다”고 하며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 전체와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했으며,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라는 든든한 확신을 갖고,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어떤 의심 없이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이다.”고 하며 크리스천을 성경 속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정의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칼빈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러나 과연 그의 신학에서 성경에 대한 신뢰를 제거한다면 어떤 신학이 남겠는가? 오늘날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은 칼빈의 신학을 받아들이기 앞서 그의 성경에 대한 자세를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본질적인 공통점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그대로 신뢰했다. 종교개혁자들은 각성을 한 것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어떤 면에서 각성은 인위적인 노력이지 진리가 아니다. 최근 필자가 프로그램 인도 차 한국교회를 방문할 때면 “다음 세대를 교회!”와 같거나 이와 유사하게 각성하자는 식의 표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유럽이나 미국 교회도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날 때 비슷한 각성적인 표어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들 교회도 모두 다음 세대를 교회에 남겨놓지 못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각성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바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행위가 앞서 버렸다. 자신들이 바른 모습을 보이면 다음 세대가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각성의 행위는 결국에 자신들도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었으며 다음 세대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지도 못했다. 이런 인위적 노력은 근본적 문

20세기 들어서면서

유럽과 미국의 다음

세대는 ‘성경’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이다.

진화론적 교육으로 인한

성경에 대한 불신이

일차적인 이유였다.

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바르게 살려고 해서 바르게 되는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야 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유럽과 미국의 다음 세대는 ‘성경’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이다. 진화론적 교육으로 인한 성경에 대한 불신이 일차적인 이유였다. 그때 교회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자녀들이 진화를 믿으면 믿음의 근거인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점을 몰랐다. 오히려 성경과 진화론을 섞은 반성경적 타협 이론들을 가르쳤다. 이런 이중적인 상태로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 하지만 성경을 부정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는가? 그런 모순된 자세는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를 바라만 보

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성경이 사실임을 부정하면서 바르게 살라고 했다. 그 결과 동성애, 폭력, 성적 타락, 낙태, 이혼 등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남겨놓았다.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는 예수님의 진리뿐 아니라 무엇이 옳은 지들을 기회도 없어진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새로운 진리나 독특한 사상을 창출한 것이 아니었다.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이다. 신앙의 유일한 권위를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외침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1517년)이 일어났던 시대는 아직 진화론(종의 기원 출판: 1859년)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루터의 95개 조항에도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조항이 없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성직자만이 성경을 소유하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분위기였을 뿐이지,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그 내용을 수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 종교개혁은 성공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

창조과학선교회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창조과학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떤 독특하고 새로운

이론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도 안된다!

진화론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다. 그러나 종교개혁 때와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성경을 읽어도 믿을 수 없는 세대라는 점이다. 바로 교과서, 매스컴, 인터넷 등을 통해 세뇌되어 있는 진화론적 사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점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사탄이 중세교회에는 성경을 접하지 못하는 전략을 썼지만,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을 쉽게 접하자 이제는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최근 각 교회와 교단들은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거창하게 치렀고 그 의미도 다루었다. 그러나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한들, 각 교회가 종교개혁 첫 구호인 “오직 성경으로”가 마음에 닿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화론과 성경을 타협한 이론들을 받아들이면서 “오직 성경으로”를 동의한다고 착각한다면 과연 그 다음인 믿음,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교회 타락도 마찬가지이다. 중세 때 성경을 직접 읽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인위적 행위를 내세웠을 때 카톨릭 교회가 타락한 것과 같이, 지금 진화론으로 인한 성경에 대한 신뢰 없이 자신들의 거짓된 행위를 우선했기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과 차이점이 없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창조과학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떤 독특하고 새로운 이론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도 안된다! 진화론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 진화론 시대에 “오직 성경으로”의 진정한 의미를 찾자는 간절한 외침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후 10:5)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ACT News

창조과학탐사
해외 사역
세미나

2020년 창조과학탐사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독특한 프로그램은 바로 ‘창조과학탐사’입니다. 그랜드캐니언을 중심으로 브라이스캐니언, 자이언캐니언, 규화목 국립공원, 세도나, 데스밸리, 요세미티 등을 경유하며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흔적들을 직접 보고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9년까지 448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는 2020년 2월로 창조과학탐사가 시작한 지 20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참석자들은 성경에 대한 확신과 함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2020년에는 매년 그렇듯이 유학생 창조과학탐사(12월 30일-1월 2일)로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비해 창조과학탐사 예약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Ark Encounter



주님과 참석해주신 교회, 학교, 단체, 그리고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효과적인 창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만 선교사 한국 대만 방문 마치고 귀국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2019년 11월 한 달간 한국과 대만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동대학교, 협성대학교, 크리스천 CEO 스쿨 등의 학교와 온누리교회 대청(담임목사 이재훈), 맑은샘교회(임재룡), 광주침단겨자씨교회(조성학), 광주두암중앙교회(박성수), 분당서광교회(최영진), 새로운교회(한홍), 서울지구촌교회(조봉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주관) 등의 교회와 CGN-TV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대만에서는 대만 은혜국제신학대학원에서 17번의 강의 후에 예류 지질국립공원에서 답사를 가졌습니다. 대만은 150명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2년마다 진행되었는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대만 은혜국제신학대학원



세미나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12월 4일 충청선교교회(담임목사 민종기)에서 '사회진화론'의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에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다하나교회(윤영광)에서 '기원에 관한 질문' '노아홍수' '지질시대대표의 탄생과 영향' '타협의 거센 바람'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협성대 신학대학원

창조과학선교회 강사 Workshop

2020년 1월 3-6일 신시내티에서 나흘 간 강사 Workshop을 갖습니다. 미주에서 사역하는 15명의 강사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자체 세미나뿐만 아니라, Answers In Genesis CEO인 Ken Ham 및 리더십들과 사역에 대한 미팅도 가지며, AIG의 Ark Encounter(방주 박물관)와 창조 박물관도 함께 견학할 예정입니다.

75 억 현재 인류의 공통조상, 놀랍게도 교과서에 실린 것보다 **최근**이다

진화론에 따른 인류의 공통조상이 350만 년 전에 살았던 유인원이라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인류 기원을 분자 수준에서 처음 보여준 1987년의 '미토콘드리아 이브(Mitochondria Eve)'에 의하면 인류는 10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추정한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서 발표한 예측에 의하면 2017년 12월 말의 세계인구는 75억 6000만 명이다. 이렇게 많은 세계인구의 공통조상이 살았을 때는 언제일까? 350만 년 전일까? 아니면 20만 년 전일까?

지난 주에 공통조상(MRCA: Most Recent Common Ancestor)의 논문을 다시 접할 모임에 참석하였다. 세계에서 권위 있는 과학지 '네이처(Nature 2004 Sep 30; 431:562-6)'에 인류의 공통조상이 살았던 때를 역사와 인구의 지리적인 이동을 근거로 모델을 만들어 수학적, 통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이 논문(Modelling the recent common ancestry of all living humans)의 저자인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 통계학과의 창(Joseph T. Chang) 교수의 방법은 간단하다. 혈통(血統)으로 보면 나는 두 명의 부모와 네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8명의 증조 할머니, 증조할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혈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임의의 두 사람이나 혹은 그 이상의 공통적인 조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무작위로 결혼한다고 가정하면, 공통조상 세대의 가장 간단한 모델은 $\log_2 P$ (P = 인구 수)이다. 가령 1천 명 인구의 가장 최근의 공통조상의 세대는 $\log_2(1000)$ 을 계산하면 10대가 된다. 인구 백만 명이면 20대,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이면 34대가 나온다. 같은 조상으로 75억 인구가 되는데 34세대 걸리며 한 세대를 30년으로 가정하면 현 인류의 공통조상 세대(T_n)는 1천 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계산된다.



그 세대 사람들은 지금 인류의 조상이거나 아니면 그 자손들이 멸종해 없어진 두 그룹으로 나뉜다. 그들 중 같은 하나의 조상을 수학·통계학적으로 계산하면 $U_n = T_n \times 1.77$ 이므로 1,770년 전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지금 인류의 같은 조상의 존재 시기는 놀라울 정도로 최근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모델의 가정처럼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종교, 교육 등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또 지리적인 요인을 감안해 선택한다. 현존하는 혈통이 원정사(遠征史)를 포함한 역사를 통해 구성됐기에 10개의 다른 종족그룹과 그들 사이에 1세대의 한 번의 이동이 있다고 가정했다. 또 AD 1년의 세계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었던 역사적인 사실도 집어넣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에 의하면, 가장 최근의 공통조상세대(T_n)는 BC 300년(76 대) 전이고, 같은 한 사람의 조상(U_n)은 BC 3,000년(169대)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그리스 최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84 ~ BC 322년에 살았던 때와 이집트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BC 2,575년 전에 세워졌다고 추정되는 시기이다. 이 모델의 약점은 인구 이동의 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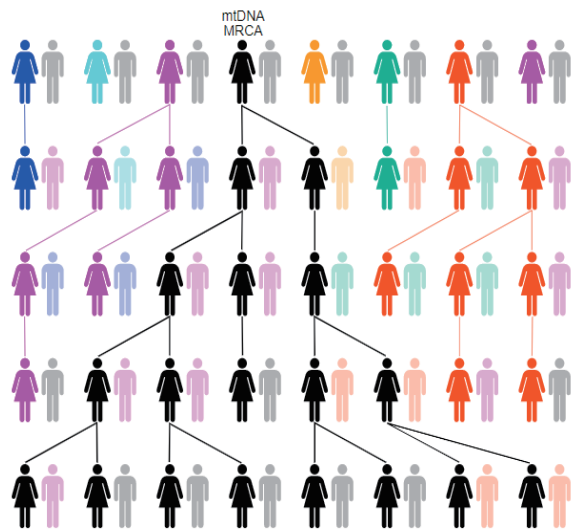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 모델에서 상정된 대륙뿐만 아니라 AD 1,500년의 세계지리를 바탕으로 대륙의 크기와 존재하였던 나라, 인구이동이 있었던 중요한 항구도시까지 참조해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한 쌍이 생애 한번은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5%가 고향을 떠나고 0.05%가 그 태어난 나라를 떠나고, 항구를 통해 이동한 사람의 95%는 그 항구가 있는 나라 사람이라고 보수적으로 가정했다.

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우리의 가장 최근의 공통조상 세대는 BC 1,415년이고 같은 한 사람의 공통조상은 단지 BC 5,353년에 살았던 것으로 측정된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출산율도 다르고 인구이동에도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 인류의 시작이 되는 하나의 조상(1A)은 만 년이 채 안 되는 단지 수 천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모델에 의하면 지금 인류의 공통조상의 존재 시기는 진화론적인 교육에 젖은 우리의 관념적인 시간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최근이 된다.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인해 사람의 기원을 분자 수준에서 찾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사람의 유전정보인 DNA는 핵에 들어 있고 반은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반은 어머니에게서 왔다. 핵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수천의 작은 에너지제조 공장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각각은 환상으로 된 DNA 가닥(a circular strand of DNA)을 가지고 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mtDNA)는 오로지 어머니로부터만 온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mtDNA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이것을 이용하여 버클리 대학의 윌슨(Allan C. Wilson) 박사 연구팀은 Nature 325, 31-36(1987)에 'Mitochondrial DNA and human evolution' 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지리적으로 다른 전 세계의 5군데 위치에서 살고 있는 147명의



지금 인류의 시작이 되는 하나의 조상(1A)은 만 년이 채 안 되는 단지 수 천년 전에

출현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모델에 의하면 지금 인류의 공통조상의 존재 시기는

진화론적인 교육에 젖은 우리의 관념적인 시간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최근이 된다.

mtDNA를 비교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 147명 모두는 같은 여성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고 그녀를 '미토콘드리아 이브(mitochondria Eve, mt Eve)'로 불렀다. 언제 'mt Eve'가 살았는가? 진화론을 근거로 하여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로 계산한 'mt Eve'는 10만~20만 년 전에 살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특히 인류기원에 대해 교과서에는 인류의 공통조상은 350만 년 전에 살았던 진화론 가설에 의해 근거한 유인원이라고 시술되었는데 사람의 유전정보인 DNA로 추정된 'mt Eve'는 10만~20만 년 전에 살았다는 결론이다.

더 큰 놀라움은 1997년에 mtDNA의 돌연변이는 10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20배나 빠르게 발생한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일어났다. 홀랜드(Mitchell M. Holland) 박사 연구팀은 "A high observed substitution rate in the human mitochondrial DNA control region"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Nat. Genet., 15 (4): 363-68, doi:10.1038/ng0497-363, PMID 9090380] 더 정확한 돌연변이율은 어머니-자녀의 대립 mtDNA를 비교함으로써 직접 결정되어 질 수 있다. 더욱 정확한 이 새로운 방법의 사용으로 추정해보면 'mt Eve'는 단지 5천~1만년 전에 살았었다는 것이다.

'mt Eve'는 어디서 살았는가? 처음의 연구는 아마도 아프리카였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기에 'Out of Africa' 라고 불렀다. 그러나 나중에 많은 토론을 거쳐 'mt Eve'의 기원은 아시아와 유럽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2003년 '네이처'의 논문에서 인류의 공통조상을 수학·통계학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인 5,353년이고 1997년의 인류의 어머니 'mt Eve'를 유전자 변이로 계산한 것도 단지 5천~1만년 전이다. 심오하게도 오늘 2019년 11월 8일을 히브리 달력은 'Cheshavan 10, 5780'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아무리 2017년 12월 말의 세계인구는 75억 6000만 명이라고 예측을 하여도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접근한 이 많은 지구에 사는 사람의 공통조상은 1만년 전을 넘지 못하는 최근이다.

배진건 / 양리생화학 박사, 배진(培進) 바이오사이언스 대표

● 위의 글은 MEDI:GATE News에 2019년 11월 8일의 실렸던 글입니다.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교육을 받고 그러한 시각에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신지 보다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성경을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는 사람으로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명학〉

창조과학탐사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진화론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 속 뿌리깊게 박혀 있었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성경은 과학과는 거리가 멀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구나. 그냥 읽자. 믿자. 하며 읽었는데 선교사님의 강의와 성경 속에 있던 노아의 홍수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사실은 정말 놀라운 진리가 다 성경에 있는것이란 걸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의 불완전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김하은〉

대학교 때 들은 창조론 교양과목에서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틀린 부분이 있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몇 년 전 그랜드캐니언을 여행하며 처음 느꼈던 감상이 "아! 노아의 홍수가 진짜구나"였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번 탐사를 통해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들을 보면서 "왜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왜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확실하고 뚜렷

하게 알려주신 두 분께 감사 드리고 이런 기회를 갖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든든한교회/김현아〉

평소에 품고 있던 많은 궁금증들을 어느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뚜렷하고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궁금증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알게 되어 참 감사하다. 놀랍도록 창조적이시고 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GINA〉

'전지' 그리고 '전능' 하신 하나님, 그것을 정말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을 마음 한 편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에 언급된 모든 사건과 내용이 진실이며 그 속에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며 감사합니다. 〈새춘천교회/염정원〉

저는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여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배웠고 그래서 인지 진화론에 대해 진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들으며 진화론적인 사회풍습과 문화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고 영향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우리 아이를 이 세상이 정해놓은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샘인 성경을

먼저 사실로 알고 자라 갈수 있게 지도하고 이끌어 주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두향교회/박성화〉

창조의 진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삶대로 걸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잘못 쌓아 올려진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길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교회/한용건〉

창조과학탐사를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이 계셨는지 세상에 물 들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없이 지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그랜드캐니언을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웅장함을 생각했는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에 대한 결과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쓸어버려야 했던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열정적인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와 온유한 성품을 지니신 김낙경 박사님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삼광교회/권은혜〉

2020 ACT Schedule

12/30-1/2	창조과학탐사 (21차유학생창조과학탐사), 이재만
1/12-20	창조과학탐사 (일산산성교회), 이재만
2/10-17	창조과학탐사 (대구화원교회), 이재만
2/10-14	창조과학탐사 (일산대림교회), 김낙경
2/19-22	창조과학탐사(소망장로교회), 이재만
3/10-12	창조과학탐사(미남침례한인총회), 김낙경
4/3-5	창조과학세미나 (워싱턴온누리교회), 이재만
4/7-14	창조과학탐사 (천안아산제자교회), 이재만
4/19-23	창조과학탐사 (임마누엘교회), 이재만
4/25	창조과학세미나 (샌디에고새소망교회), 이재만
4/27-5/3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5/18-21	창조과학탐사 (hold), 이재만
5/25-30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